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 주요연혁

이번 호에서는 ABS의 국제논의 동향을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지구정상회담(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되면서 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94년 바하마 나소에서 개최된 제1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 정보교환체계(CHM),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 자문 보조기구(SBSTTA) 설치 등 협약 틀을 구축했습니다.

1998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된 제4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련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와 이익분배에 대한 전문가 패널, 전통지식에 대한 실무그룹회의, 생물다양성 정보교환체계(CHM)의 비공식 자문위원회 등 각 주제 영역별 실무회의의 진행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최대 쟁점 사항인 유전자원의 이익분배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6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10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래종에 대처하기 위한 적용원칙으로 사전예방접근원칙 요건의 구체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 추진과 산림확장사업계획의 마련 등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생물다양성협약이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본(Bonn) 가이드라인' 을 채택해 ABS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 은 ABS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에 불과해 이익공유의 실효적인 이행이 의문시된다는 우려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2006년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개최된 제8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협약, 심해저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적 사용 제한기술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와 함께 생물다양성 중장기(2011~2020) 전략계획 및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CBD 이행을 위한 자원 동원전략, 일본생물다양성펀드 등 6천만 불 재정 기여, 생물다양성 국제기구(IPBES) 설립 권고 등이 주요 의결사항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제는 '생물다양성의 지속발전(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었습니다. CBD COP12에는 164개국 의 25,203명이 참석했고, 당사국 총회에는 15,268명, 부대행사에는 9,93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사국 총회, 의정서 회의(2개), 부대회의, 사이드 이벤트(228개) 등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10.6~10.17), 바이오안전성 의정서회의(9.29~10.3), 나고야의정서회의(10.13~10.17),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10.13~10.14), 고위급 회의(10.15~10.16)가 개최됐으며, 제12차 총회에는 제11차 총회(10,000여 명, 하이데라바드, 인도)와 제10차 총회(18,000여 명, 나고야, 일본)에 비하여 약 1.5배를 상회하는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토의의 핵심 의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을 주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의 중간이행 점검 및 향후 이행 로드맵 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구축, 협약이행 증진을 위한 이행수단 강화(과학기술협력, 생물정보체계 구축, 개도국 역량강화 재정 등 협약 목표 이행수단 평가 및 방향제시)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평창로드맵 채택(제4차 생물다양성전망(GBO-4) 발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강조(정부의 바이오브릿지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 제안), 강원선언문 채택(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청정화 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경험과 역량 결집) 등이 있습니다.

2016년 제13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는 12월 4일 ~17일 멕시코 칸쿤에서 "다양성의 거대한 흐름: 사업의 기회(Mainstreaming Biodiversity: Opportunities fro Business)" 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출처: ABS guidebook, ABS산업지원센터,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글로벌 원생생물자원조사부 최강국